

20일 Market Index			
↓ 코스피	2379.20	↑ 코스닥	802.20
	(-16.49)		(+4.81)
↓ 금리 (미국 9년)	3.264	↑ 환율	1310.10
	(-0.151)		(+7.90)

[경제종합]
美 FOMC 임박
불안정한 금융시장
금리 예측불허
03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몸집 ↑ 新기술 고급화 VS 가성비로 경쟁력 확보

국내 車업계 마케팅 양극화

현대차·기아

차체 더 키우고 실내공간 확보

미래첨단기술 탑재로 가격도 ↑

한국지엠·르노코리아

기존모델 편의기능 대폭 개선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력 높여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나선다.

국내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기아는 차체를 키우고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한국지엠과 르노코리아자동차는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인상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가성비 모델이 반등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5개사의 지난달 내수 판매량은 총 12만 5151대를 기록했다. 이 중 현대차와 기아는 11만 5031대를 판매하며 내수 점유율 91.9%를 기록했다. 나머지 3사의 점유율은 8.1%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내수 시장 분위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관련기사 2면〉

국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현대차·기아는 최근 차량 크기를 키우며 실내 공간성을 확보함과 동

시에 첨단 기능을 선보이며 판매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출시한 현대차 코나의 전장은 1세대보다 145mm 늘어난 4350mm, 축간거리는 60mm 길어진 2660mm로 동급 최고 수준의 실내 공간을 구현했다는 게 현대차 설명이다. 기아 셀토스도 전장은 40mm 짧지만 축간거리는 30mm 늘어나며 실내 공간을 넓혔다.

기아가 지난해 출시한 소형 SUV ‘디올 뉴 니로’도 차체를 더 키웠다. 니로의 전장은 4420mm로 기존 모델보다 65mm 늘었다. 축간 거리와 전폭은 각각 20mm 늘어난 2720mm, 1825mm다. 전기차인 디올 뉴 니로 EV는 축간 거리(2720mm)와 전폭(1825mm)이 1세대 모델과 같지만 전장은 4420mm로 종전대비 45mm 더 길어졌다. 이 외에도 지난해 출시된 현대차 신형 그랜저의 경우 이전 보다 전장은 45mm 길어진 5035mm로 5m를 넘겼다. 중형 SUV와 다른 세단도 비슷한 분위기다.

이처럼 현대차·기아의 신형 모델들이 차체 확대와 함께 가격까지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졌다.

반면 한국지엠과 르노코리아 등은 첨단 기술 도입은 물론 가격 인상율을 최소화 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있다. 우선 한국지엠은 이달 출시하는 첫 번째 크로스오버 모델인 ‘트랙스 크로스오버’로 승부수를 띄운다. 빠르게



천안함 46용사, 잊지 않겠습니다

서해수호의 날을 나흘 앞둔 20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박동혁함 등 유도탄고속함(PKG) 승조원들이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를 참배한 후 경례하고 있다.

/뉴스1

상승하고 있는 소형 SUV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인기 소형 SUV는 현대차 코나와 기아 셀토스 등이 있다. 하지만 코나의 경우 1.6가솔린 터보 모델의 기본트림은 2537만원이다. 셀토스의 경우 1.6 가솔린 터보 모델의 기본트림이 2160만원이다. 다양한 옵션을 추가하면 3000만원에 육박한다.

반면 한국지엠의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한국보다 먼저 출시가 예정된 미국 시장에서 공개된 가격과 비교하면 내수 시장서 2000만원 초반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구글을 통해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가격을 검색하면 기본가격 2052만원으로 표시됐다.

만약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2052만원으로 출시될 경우 국내 판매중인 소형 SUV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형성

하게 된다.

르노코리아는 신차출시보다 기존 모델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르노코리아의 효자 모델인 QM6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성비(최고의 가격 대비 성능) 모델로 주목받으며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최근 QM6의 부분변경 모델인 ‘더 뉴 QM6’를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더 뉴 QM6는 외관 디자인 변화와 내장 편의 기능을 개선했다. 특히 기존 가솔린 QM6 GDe와 LPG QM6 LPe에 뒷좌석을 적재공간으로 만든 QM6 퀵스트를 추가해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넓혔다.

더 뉴 QM6는 새 디자인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하고, 범퍼와 전후면 스킴에도 새로운 디자인을 반영했다. 헤드램프는 수직(버티컬) 디자인의 LE

D 주간주행등을 적용했다. 18인치, 19인치 휠에도 디자인 변화를 줬다. 실내에는 친환경 올리브 그린 나파 가죽시트를 추가했다. 하지만 가격은 소형 SUV 가격과 비슷하다. 더 뉴 QM6 가격은 2.0 GDe LE 2860만~3715만원, 2.0 LPe 2910만~3765만원이다. QM6 퀵스트는 2680만~3220만원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최근 완성차 업체들이 첨단 기능을 적용한 모델이 내놓으면서 자연스럽게 가격 인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소비자들 자동차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어 내수 시장의 소비 트렌드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현대차·기아의 차량 출고 대기 시간이 줄어든 것도 이같은 영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중대재해처벌법, ‘예방법’ 전환 탄력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평가’ 중심 보완

고용부,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배포

정부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도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사후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예방 중심의 ‘중대재해예방법’ 개정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배포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고용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 조치로 제작됐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처벌 위주에서 ‘자기규율 예방 체계’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난 달 처음 ‘위험성 평가’ 중심의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노사 자율로 파악하고, 부상·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를 시행했는지, 사고·산업재해를 위험성 평가에 반영했는지 여부다. 또, 근로자를 참여시켰는지, 위험성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전파했는지 등도 기준이 된다.

다수의 중대재해 사고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

만, 이들 사업장 대부분은 자체 위험성 평가를 할 만한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중대처벌법 적용 대상에도 빠져 있다.

중대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정부는 이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위험성 평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2면에 계속〉

/세종=원승일 기자 won@

‘인천공항면세점 입찰’ 롯데 탈락 이변

신라·신세계 ‘복수사업자’로 선정 관세청 특허심사 거쳐 4월말 결정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 1라운드 종료됐다.

유력한 후보였던 면세업계 1위 기업 롯데면세점과 최고 가격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됐던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 FG)이 탈락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7일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를 마치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최종 사업자는 관세청이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들에 대해 특허심사를 거쳐 4월말 결 결정된다.

대기업 사업권인 DF1·2는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 DF3·4는 패션·액세서리·부티크, DF5는 부티크를 취급한다.

DF1~4는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DF5는 신세계·현대백화점·신라면세점이 각각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업계에 따르면 DF1~2는 신라면세점, DF3~5는 신세계면세점이 가장 높은 가격을 냈다. 5개 구역 모두 최저입찰가 대비 최대 170%에 달하는 임대료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중견 사업권인 DF8·9에서는 경북공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면세사업자 선정 결과에 업계의 반응은 “이번의 연속”이라는 반응이다. 국내 1위 면세기업인 롯데가 탈락했고, 강력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외국 기업이 떨어진 탓이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尹 “대외 금융불안 모니터링 강화… 리스크에 즉시 조치”
▲대통령실 “60시간,尹대통령 가이드라인 아냐… 그 이상도 가능” /사진 뉴스1

▲고용장관, ‘근로시간 개편’ 우려에 “연차 충분히 보장돼야”
▲대통령실 “독도·위안부 논의안돼… 수산물 문제는 공개 못해”



▲與 “尹대통령이日하수인? 헛소리… 이재명이 조폭·범죄 하수인” /사진 뉴스1
▲李 기소 임박… ‘당헌 80조’ 논란 재점화될 듯